

SK, 투명경영 실천할 최고인물 영입

IR담당 임원으로 JP모건 이승훈 상무 내정 ... 아시아 최고 애널리스트

SK(대표 신현철)가 신설조직인 CR전략실 산하의 IR 담당상무로 JP모건증권의 한국리서치 헤드에 있던 이승훈 상무를 임명했다.



이승훈 상무

새로 영입된 이승훈 상무는 국내·외 기관 투자자들에게 시장전략가(스트래티지스트)로 잘 알려진 인물로, 2000년과 2001년 2년 연속으로 <Asiamoney>에서 선정하는 한국 최고의 애널리스트로 선정된 바 있다.

<Institutional Investor>에서 매년 선정하는 아시아 지역 Survey에서도 한국 애널리스트 중 가장 높이 평가되는 인물 중 한명이다.

이승훈 상무는 특히 2002년 2월 말 한국 주식시장이 북핵 사태로 종합주가지수가 550대로 급락했던 시기에 <We Shall Overcome>이라는 시장전략 보고서를 통해 지수가 800으로 상승할 것을 예측해 시장을 놀라게 한 적도 있었다.

SK 관계자는 “이승훈 상무의 영입은 주주중시 경영과 이사회 중심의 투명경영을 실천하겠다는 SK와 최태원 회장의 확고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훈 상무는 서울대 인문대학 졸업 후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교에서 국제관계 석사를, 미시간 대학교에서는 경제학 석사를 이수했으며, 2002-2003년 동안 UBS증권 한국 리서치 헤드상무로, 모건스탠리에서는 한국시장 전략 및 은행담당 애널리스트(이사)로 경력을 쌓았다. <조인경 기자>

<화학저널 2004/03/25>